農民後繼者 經營實態分析

吳 世 翼
責任研究員, 生產經濟研究室
權 泰 進
研究員, 生產經濟研究室

Ⅰ. 問題의 提起
Ⅱ. 標本農家 概況
Ⅲ. 後繼者 育成資金 使用實態
Ⅳ. 經營實態 分析
Ⅴ. 償還能力 檢討
Ⅵ. 要約 및 結論

Ⅰ. 問題의 提起

여러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는 高度成長을 지속하여 왔다. 經濟發展에 따른 產業構造의 變化와 함께 產業部門間의 不均衡成長도 심화되었다. 產業化의 진전에 따라 都市에서의 人口吸入要因(pull factor)은 더욱 커지게 되고 農村에서 都市로의 人口 移動이 가속화됨으로써[1] 農村人口는 매년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農村人口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農村勞動力의 減少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1960년에서 1980년 사이 農業勞賃은 30배나 증가되었다. 특히 靑壯年層의 都市流出은 農村勞動力의 質的 低下라는 문제마저 초래하였으며, 이것은 農村의 基幹勞動力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轉換期를 맞은 우리 나라의 農業은 과거의 傳統的 農業에서 商業的 農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營農方式도 점차 科學化되고 있다. 또한 輸入自由化 등 開放經濟體制로의 전환에 따라 우리의 農業도 對外競爭力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難題를 해결하고 先進農業, 福祉農村을 建設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전한 精神을 지닌 젊고 패기있는 靑少年들의 農村定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실시하여 왔다. 이 事業은 農漁民 後繼者 育成基金을 設置運用하여 農村에 정착할 意思와 能力을 가진 靑少年이 自立基盤을 확립할 수 있도록 資金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政府는 우선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法을 제정, 法的根據[2]를 마련하였으며 農水產部를 비롯한 行政機關, 農

[1] 1960~65년 동안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人口移動은 전체 農村人口의 3.3%였으나 1975~80년은 14.1%로 계속적인 增加趨勢를 보여 왔다.

協, 農振廳 및 새마을運動 中央本部 등 關聯機關을 참여시켜 조직적인 事業推進體系를 구축하였다. 그간 선발된 農民後繼者는 5,400여명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資金은 350여億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은 制度 및 施行面에서 試行錯誤를 거치는 가운데 점차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관한 많은 硏究도 진행되어 여러 각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政策代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의 基本方向 설정에 관한 것으로서 社會的, 敎育的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制度 및 經營的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農民後繼者의 實態調査를 통하여 事業別 資金運用實態 및 經營實態를 파악하여 後繼者의 經營成果를 분석하고 支援資金에 대한 償還能力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後繼者 育成資金의 支援方向을 모색코자 한다.

Ⅱ. 標本農家 槪況

이 연구에 이용된 資料는 현지 청취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標本 農民後繼者는 全國 8個道, 31個 市郡에서 任意選定되었다. 調査內容에는 農民後繼者의 資金受惠 및 使用實態, 支援作目에 대한 營農實態 등 農家經濟 전반에 걸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調査의 未備點을 보완하기 위하여 農村指導所의 後繼者 經營分析資料를 참고하였다. 分析對象期間은 1982년 1~12월까지의 1년간이며, 對象事業은 耕種農業, 施設園藝, 畜産, 果樹, 特作의 5個 部門이다. 이중 畜産部門은 酪農을, 果樹部門은 단감, 特作部門에서는 느타리버섯을 각각 代表作目으로 선정하였다. 각 事業別 標本數 및 農家의 一般現況은 〈表 1〉과 같다.

表 1 調査農家 一般現況

	標本數(戶)	年齡(年)	學歷(年)	營農經歷(年)	家族數(人)	營農從事者數(人)	農機械保有點數(點)
耕種農業	24	28.0	10.0	8.0	5.2	3.5	2.7
施設園藝	8	28.4	12.8	7.4	5.5	3.6	2.3
畜産	12	28.3	12.0	7.4	4.9	3.3	1.9
果樹	5	28.0	11.6	8.4	4.8	2.8	2.4
特作	4	27.5	9.8	9.8	4.5	3.8	1.8
平均	53	28.1	11.0	7.9	5.1	3.4	2.4

조사된 後繼者의 平均年齡은 28.1歲이고, 80% 이상이 25~30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學歷은 평균 11.0년으로 높은 편이며 高卒 이상의 學歷을 가진 後繼者만도 전체의 64%나 된다. 營農經歷은 7.9년으로 나이에 비하여 비교적 풍부한 농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農民後繼者의 平均家族數는 5.1人으로 전국 평균 4.9人보다 조금 많았다. 戶當 營農從事者數는 3.4人으로 66.7%의 農業就業率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全國平均보다 높다.

農民後繼者들은 一般農家보다 월등히 많은 農機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耕耘機와 動力噴霧機 같은 必須機種은 거의 모든 後繼者가 보유하고 있었다. 事業部門別 農機械保有臺數를 農機械保有點數를 이용하여 비교해 보면[3] 耕種農業部門이 가장 높고 特作部門이 제일 낮다. 後繼者

[2] 1980년 11월 15일 :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法制定(法律3262號)
1981년 2월 28일 : 農漁民後繼者 基金法施行令制定(大統領令 第10209號)

[3] 耕耘機를 기준으로 각 農機械의 性能(馬力 : HP)과 價格을 감안한 상대적 指數임. 경운기를 1.0으로 하였을 경우의 農機械別 點數는 다음과 같다.

機種	點數	機種	點數	機種	點數
耕耘機	1.0	動力脫穀機	0.2	콤바인	4.0
트랙터	5.0	移秧機	1.0	揚水機	0.05
動力噴霧機	0.5	바인더	0.8	切斷機	0.1

의 平均 農機械保有點數는 2.4點으로 全國平均 保有點數인 0.4點과는 큰 격차가 있었다.

Ⅲ. 後繼者 育成資金 使用實態

1. 後繼者 育成資金 受惠狀況

젊은 後繼者들은 父母世代의 營農方式을 개편해 보려는 의욕이 강하고, 商業的 農業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資本의 外的制限(external capital rationing)을 받게 된다(朴振煥 1983, 12). 1970년 이후 信用事業이 확대됨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短期營農資金은 農畜協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營農基盤確保를 위해 많은 資金을 中長期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後繼者들이 비교적 巨額의 資金을 中期低利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에게 營農定着意志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後繼者 育成資金은 정부가 작성한 標準設計에 따라 지급되는데 1982년의 事業別 資金支援基準額 및 融資條件은 〈表 2〉와 같다. 1人當 支援基準額은 500~700만 원으로 1981년의 250~500만 원에 비하여 40~100% 증액되었다. 利子率은 일률적으로 年 5%를 적용하고 있으며, 償還期間은 3年 据置 4年 償還이나, 果樹部門만은 4年 据置 3年 償還으로 据置期間이 길다.

調査者 53명에 대한 資金受惠實態를 분석한 결과는 〈表 3〉과 같다. 後繼者 1人當 平均支給額은 652만 1천 원이었다. 事業別 實支援金額을 〈表 2〉의 支援基準額과 비교해 보면 耕種部門은 미달하고 있으나 다른 부문은 모두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育成資金 支援過程에서 農水産部의 事業別 標準設計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同一金額을 책정한 地域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表 2 事業別 資金支援條件, 1982

	1人當 支援基準額 (千원)	利子率 (%/年)	償還期間(年)		
			据置期間	償還期間	계
耕種農業	7,000	5	3	4	7
施設園藝	6,000	5	3	4	7
畜産	6,000	5	3	4	7
果樹	6,000	5	4	3	7
特作	5,000	5	3	4	7

後繼者 育成資金 支援時期의 적정 여부는 後繼者의 年間營農計劃에 큰 영향을 미친다. 畜産의 경우는 季節的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 나머지 事業은 資金支援이 늦을 경우 당년 營農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事業効果 자체도 지연된다. 分期別 資金支援實態를 보면 調査者의 83%가 3/4~4/4分期에 지원받았으며 2/4分期는 17%에 불과하고 1/4分期에는 전혀 支援實績이 없다〈表 3참조〉. 이것은 後繼者 選抜이 3~4월 경에나 끝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資金이 적기에 방출되기 위해서는 後繼者 選抜時期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 특히 耕種農業部門은 土地를 구입한다는 특성 때문에 4/4分期에 集中 支援되고 있는데 選抜時期를 앞당겨 1~4월에 資金을 지원한다면 事業効果를 1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後繼者의 希望融資 時期와 실제 支給時期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 調査者 중 資金 支給時期가 본인이 희망한 時期와 일치된 경우는 전체의 26%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支援時期에 관한 한 後繼者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현재의 資金支援體系는 資金調達事情만을 감안하여 下向式으로 資金을 배정하고 있어 後繼者의

表 3 後繼者育成資金 支援狀況

單位：人

	1人當受領金額 (千원)	資金支援時期 (A) 1/4	2/4	3/4	4/4	希望融資時期 (B) 1/4	2/4	3/4	4/4	A와B가 일치한 경우
耕種農業	6,854	—	2	5	17	6	2	3	13	6
施設園藝	6,250	—	1	5	2	—	—	5	3	1
畜産	6,163	—	5	4	3	2	3	5	2	5
果樹	6,690	—	1	3	1	4	—	1	—	—
特作	5,925	—	—	4	—	—	1	3	—	2
平均計	6,521	—	9	21	23	12	6	17	18	14

事業計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後繼者 育成資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後繼者의 希望融資時期가 미리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下向式보다는 上向式 資金配定 體系가 바람직하다.

2. 後繼者 育成資金 使用實態

後繼者들의 育成資金 使用內譯은 〈表 4〉와 같다. 耕種農業의 後繼者들은 土地購入에 支援資金 전액을 투입하고 있으며 별도로 139만 2천 원의 自己資本이 투입되었다. 購入土地의 坪當價格은 畓이 5,139원, 田이 3,900원이었고 諸稅金 및 수수료로 土地代金의 3.1%가 소요되었다.

施設園藝部門의 後繼者는 支援資金을 비닐 하우스 資材購入과 經營費로 사용하였다. 하우스 骨材는 주로 아연 도금된 철재 파이프를 쓰고 있다. 經營費로는 116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750평의 하우스 栽培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다.

畜産部門은 乳牛購入과 畜舍新築에 支援資金 전액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412만 원의 별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後繼者들이 구입한 乳牛는 모두 46頭로 戶當平均 3.83頭에 해당한다. 연령별로 보면 1歲 미만의 송아지는 7頭, 1～2歲 15頭, 2～3歲는 24頭로 초임우나 경산우를 많이 구입하고 있다. 畜舍新築面積은 24.3평으로

表 4 後繼者育成資金 使用實態

單位：千원

事業別	支援金額	投入內譯	總投入額	自負擔額
耕種農業	6,854	畓：1,058坪, 田：657坪 諸稅金：246千원	8,246	1,392
施設園藝	6,250	비닐하우스施設：750坪 其他：1,160千원	6,250	—
畜産	6,163	乳牛：3.83頭, 畜舍：24.3坪	10,283	4,120
果樹	6,690	果樹園敷地：3,600坪 造成費：2,198千원, 其他：212千원	6,690	—
特作	5,925	栽培舍：140坪 經營費：2,685千원	5,925	—

乳牛 1頭당 6.3坪에 해당하며 坪當 新築費用은 7만 3천원이었다. 대부분의 後繼者들은 앞으로의 經營擴大를 위하여 현재 소요면적보다 큰 畜舍를 짓고 있었다.

果樹部門은 果樹園 敷地購入에 428만 원, 苗木代 79만 2천 원 그리고 造成費로 140만 6천 원이 투입되었다. 果樹園面積은 3,600평으로 정부의 標準設計 面積보다 넓었다. 果樹園敷地는 傾斜地나 野山이 대부분이며 坪當地價는 1,189원이었다. 品種은 「부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10a當 植栽本數는 33株이다. 果樹部門은 支援資金으로 當年의 開園費用은 충당할 수 있으나 收穫期까지는 4～5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의 經營費는 自負擔하여야 한다. 느타리버섯 栽培部門은 栽培舍 설치와 經營費로 전액을 사용하였다. 栽培舍 設置面積은 140평(栽培床面積 기준)이며 철재로 된 아치형 간이 재배사를 주로 축조하였

다. 100坪當 設置費用은 230만 원이 소요되었고 耐久年數는 5~7년이다. 經營費로는 268만 5천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1期作 栽培에 충분한 금액이다.

이상의 資金投入內譯을 살펴볼 때 後繼者들은 支援資金의 거의 전액을 單一作目에 투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後繼者 자신의 의사보다는 오히려 行政 및 指導機關의 指導監督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즉 後繼者들은 農協으로부터 資金을 인출할 때 資金의 사용과 용도를 밝힌 所要資金明細 確認書를 첨부해야 하며, 또 지원된 자금이 계획한 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검토받게 된다. 그러나 事業에 따라서는 單一作目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作目에 複合的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耕種農業이나 果樹部門에서는 韓牛와 複合經營할 때 상환기간이 단축되며 畜産, 느타리버섯 栽培部門에서는 農地購入과 병행할 때 自立基盤構築이 촉진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單作 위주의 標準設計는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支援金額의 一定限度내에서 複合投資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Ⅳ. 經營實態 分析

1. 經營規模의 變化

後繼者들은 支援資金을 대부분 營農基盤을 확충하는 데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選拔 후의 經營規模는 크게 확대되었다.〈表 5〉는 選拔 전후의 經營規模 變動狀況을 보여 준다.

選拔 전의 後繼者 戶當 耕地所有面積은 4,032평으로 全國平均보다 1.7배나 많았다. 事業別로는 果樹部門이 5,210坪으로 제일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畜産, 施設園藝, 特作, 耕種農業의 순이었다. 특히 耕種農業部門의 耕地面積은 3,307평에 불과하였으며 全國平均値보다도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던 後繼者도 12명(50%)이나 된다. 그러나 選拔 후에는 1,715평의 農地를 구입하여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하게 되었다.

賃借面積은 選拔 전후의 차이가 없었다. 後繼者들의 戶當 平均 賃借面積은 畓 416평, 田 207평으로 총 623평의 農地를 賃借 경작하고 있었으며, 所有面積이 적은 부문일수록 賃借面積이 넓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耕種農業 部門은 賃借面積이 1,049평이나 되는데, 이는 選拔 전 所有面積이 3,307평으로 가장 적었기 때문이었다.

後繼者들이 지불한 10a當 平均 賃借料는 精穀으로 畓 147kg, 田 71kg이었다. 事業別로는 施設園藝部門의 賃借料가 166kg으로 제일 높았는데 이는 비닐 하우스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營農條件이 비교적 양호한 土地를 임차하였기 때문이었다.

所有面積과 賃借面積을 포함한 총 耕作面積은 選拔 전 4,655평에서 選拔 후에는 5,771평으로 1,116평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耕種農業部門의 土地購入과 果樹部門의 果樹園 造成에 기인된 것이었다.

選拔 전 後繼者들의 營農基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畜産은 支援對象 部門의 기반이 비교적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부문은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耕種農業을 제외한 全部門은 專門技術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랜 경력이 필요한데, 이

表 5 農民後繼者 營農基盤

單位 : 坪

		所有							賃借	
		畓	田	과수원	하우스시설	느타리 재배사	한우(두)	유우(두)	畓	田
耕種農業	前	2,015	1,121	171	63	—	1.54	—	641	408
	後	3,073	1,778	171	63	—	1.54	—	641	408
施設園藝	前	3,288	1,162	188	—	—	0.88	—	88	—
	後	3,288	1,162	188	750	—	0.88	—	88	—
畜産	前	2,454	1,718	515	—	—	0.42	1.25	496	—
	後	2,454	1,718	515	—	—	0.42	5.08	496	—
果樹	前	3,100	1,580	530	—	—	2.00	—	—	—
	後	3,100	1,580	4,130	—	—	2.00	—	—	—
特作	前	2,413	1,320	—	—	—	1.75	—	—	300
	後	2,413	1,320	—	—	140	1.75	—	—	300

부문의 後繼者 중에는 처음 시작하는 農家가 많다. 특히 施設園藝와 特作은 調査者 全員이 모두 新規事業者들이었다. 이러한 部門은 社會經驗의 부족, 專門技術의 미숙, 각종 정보의 미비 등으로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어 새로운 부문에 참여하는 後繼者를 위한 효과적인 事後管理體系와 專門敎育의 강화가 더욱 요청된다.

2. 營農實態 分析

農民後繼者들은 대부분이 젊고 패기있는 청소년이며 학력이 높고 營農經歷도 비교적 풍부하다. 이들은 새로운 所得源을 개척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營農방식도 과거의 傳統的 農業에서 商業的 農業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經營方式도 종래의 米麥 중심의 單一經營을 탈피하여 畜産, 施設園藝, 果樹 등을 복합함으로써 農業資源의 합리적 이용을 꾀하는 동시에 所得의 안정적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後繼者들의 選拔前 經營形態를 보면 調査者의 3분의 1이 單一經營을 하고 있었고 複合經營을 하는 후계자는 전체의 67%였다. 그러나 선발 후에는 單一經營은 5%로 감소하였고 그 대신 두 가지 作目이 結合된 형태의 複合經營이 61%, 세 가지 作目 이상의 複合經營이 34%로 증가하여 經營이 점차 複合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耕地를 비롯한 營農基盤 利用狀況은 〈表 6〉에 나타나 있다. 後繼者들이 재배하고 있는 作物의 種類는 40여 종에 이르며 이들 개개 작물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作付體系는 50여 종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畓에는 水稻, 麥類와 같은 食糧作物이 주로 파종되고 있으며, 飼料作物과 施設園藝 作物도 일부 재배하고 있다. 麥類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南部地方에서는 稞麥과 麥酒麥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中部地方에서는 大麥을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飼料作物은 畜産部門에서 많이 播種하고 있는데 특히 選拔 후에는 植付面積이 크게 증가하였다. 飼料作物로는 주로 靑刈胡麥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栽培되고 있다. 조사된 53戶의 平均畓 土地利用率은 126%로 全國平均보다 약간 높았다.

田에는 食糧作物보다 經濟作物이 더 많이 栽培되고 있다. 後繼者들이 많이 택하고 있는 作付體系는 經濟作物 單作, 食糧作物 單作, 經濟作物 二毛作의 순이나 畜産部門에서는 飼料作物

表 6 農民後繼者 營農狀況

單位 : 坪

		畓				田						과수원	한 우(두)			우유(두)	느비타리섯
		식량작물	시설작물	사료작물	計	식량작물	시설작물	경제작물	사료작물	기타	計		번식우	비육우	計		
耕種農業	前	3,012	63	—	3,075	653	—	1,138	—	66	1,857	171	1.12	0.42	1.54	—	—
	後	4,212	63	—	4,275	933	—	1,626	—	94	2,653	171	1.12	0.42	1.54	—	—
施設園藝	前	3,558	—	—	3,558	322	—	1,032	22	63	1,439	188	0.25	0.63	0.88	—	—
	後	3,558	500	—	4,058	239	294	975	16	101	1,625	188	0.25	0.63	0.88	—	—
畜産	前	3,112	—	212	3,324	675	—	606	239	412	1,932	515	0.08	0.34	0.42	1.25	—
	後	3,112	—	687	3,799	256	—	606	778	412	2,052	515	0.08	0.34	0.42	5.08	—
果樹	前	4,284	—	118	4,402	976	—	817	—	—	1,793	530	1.20	0.80	2.00	—	—
	後	4,284	—	118	4,402	976	—	817	—	—	1,793	4,130	1.20	0.80	2.00	—	—
特作	前	2,616	—	340	2,956	883	—	865	—	68	1,816	—	0.75	1.00	1.75	—	—
	後	2,616	—	340	2,956	786	—	770	—	60	1,616	—	0.75	1.00	1.75	—	280

* 畓田面積에는 賃借地 포함.

의 비중이 더 크다. 食糧作物로는 콩이 주로 單作의 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나 江原道에서는 옥수수와 감자도 일부 재배하고 있다. 經濟作物로는 고추, 참깨, 봄채소, 가을 채소 등이 單作 또는 二毛作의 형태로 재배된다. 특히 後繼者 중에는 과거의 自給的 小規模栽培에서 탈피하여 換金을 목적으로 고추, 참깨, 김장 채소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農家가 많았다. 飼料作物로는 옥수수가 靑刈 또는 엔시레지용으로 재배되며 일부 後繼者들은 오차드그라스와 수단그라스와 같은 牧草를 파종하기도 한다. 後繼者들의 田의 平均 土地利用率은 122%로 全國平均보다 낮았다. 이는 冬作物로 흔히 도입되고 있는 보리의 재배면적이 적기 때문이다. 後繼者들은 이미 畜産, 施設園藝, 느타리버섯 등을 도입하여 적절한 형태의 複合營農을 영위함으로써 農閑期를 생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收益性이 낮은 보리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

施設園藝는 비닐하우스 設置場所에 따라 畓裏作 하우스 재배와 田 하우스 재배로 나눌 수 있다. 畓裏作 하우스 재배는 南部地方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面積이 크고 單作 중심이다. 이것은 水稻를 收穫한 직후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듬해 水稻 移秧期까지 高等菜蔬를 재배하는 것으로 冬節期의 遊休勞動力과 農地를 生産化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經營方式이다. 畓裏作 하우스 재배에서는 주로 오이, 딸기 등과 같은 果菜類가 促成 또는 半促成의 형태로 재배된다. 한편 田하우스 재배는 中部 以北 地方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年中 계속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土地利用率이 높다. 後繼者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作付體系는 오이 半促成栽培+상치 抑制栽培의 형태이며, 그 사이에 生育期間이 짧은 열무, 얼갈이 배추, 알타리무우 등이 재배되기도 한다. 이러한 作付體系에서는 오이 대신에 이와 비슷한 生育期間을 가진 토마토, 참외, 수박, 호박 등이 도입되기도 하며 또 상치도 쑥갓 등으로 代置할 수 있다. 이밖에 生育期間이 비교적 긴 고추와 生育期間이 짧은 葉菜類와의 結合形態도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또 生育期間이 짧은 根菜類와 葉菜類를 年 3~4回 윤작하는 後繼者도 있었다.

表 7 作目別 收益性 分析

單位：千원

	식량작물(10a當)			경제작물(10a當)				시설작물(100평當)				축산(두/년)			단감(10a當)	느타리(100평/期)
	수도	보리	콩	고추	참깨	가을배추	얼갈이배추	상치	고추	오이	딸기	한번 우식우	한비 우육우	유우		
조 수 익	328	95	93	449	205	400	266	318	499	650	585	518	3,745	1,866	645	2,801
경 영 비	113	55	34	173	74	121	132	174	266	381	366	225	3,381	1,000	134	2,193
소 득	215	40	59	276	131	279	134	144	233	269	219	293	364	866	511	608

3. 農民後繼者의 所得分析

農民後繼者의 所得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本硏究는 1982년에 선발된 後繼者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事業에 따라서는 所得이 미처 발생하지 않은 農家가 있을 뿐 아니라 後繼者別로 投資內譯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硏究에서는 1982년도를 기준으로 主要作目의 收益性을 분석한 뒤 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後繼者의 所得을 추정하였다. 作目別 收益性分析은 〈表 7〉에 나타나 있으며 分析의 前提條件은 다음과 같다.

(1) 投入物 및 產出物量：畜產이나 果樹를 제외한 전 작목은 現地調査資料를 적용하였다. 畜產作目은 畜協의 畜產物生產費 調査를 이용하였으며 果樹는 旣存 分析資料와 農家 調査値를 이용, 年次別로 분석하였다.

(2) 價格：모든 價格은 1982년 不變價格을 적용하였다. 農產物價格은 政府收買 2등품 가격을 적용하되 非收買品目은 農家販賣價格을 적용하였다. 또 最近에 價格變動이 심했던 韓牛와 酪農에 대해서는 1978～82년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投入物價格은 農協販賣價格을 적용하였으며 農協에서 취급하지 않는 品目은 農家購入價格을 적용하였다.

(3) 勞賃 및 地價：調査地域의 實去來價格을 적용하였다.

(4) 資本利子：土地資本利子는 年 5%, 固定 및 流動資本利子는 年 10%를 적용하되 作目別 在圃期間을 감안하였다.

(5) 耐久年限：固定資本 및 大動植物의 耐久年數는 「農家經濟 調査結果報告」의 基準을 적용하였다.

(6) 기타 本硏究에서 조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農畜產物 標準收益性」을 참고하였다.

農民後繼者의 選拔 전후 農家所得은 〈表 8〉과 같다. 後繼者들의 選拔 전 平均 農家所得은 534만 6천 원으로 1982년도 全國平均 農家所得인 446만 5천 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그중 農業所得은 416만 2천 원으로 全國平均値보다 37%나 많으나 農外所得은 약간 적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後繼者들은 일반 農家에 비해 營農基盤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農外所得보다는 農業所得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事業別로는 畜產과 果樹部門의 所得이 630～640만 원으로 비교적 높았고 기타 部門은 470～530만 원 수준이었다. 事業別 所得構成을 보면 畜產部門을 제외하고는 耕種收入이 모두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施設園藝部門의 경우는 84%나 된다. 이것은 後繼者들의 經營이 畓田作 위주로 치중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農家所得 向上을 도모하는 데 큰 制約이 되고 있다.

한편 선발 후의 所得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발 후의 後繼者 戶當 平均 農家所得은 709만 1천 원으로 選拔前 所得보다 174만 5천원(선발 전 所得의 32.6%)이 증가되었다. 가장

表 8 農民後繼者의 選拔前後 農家所得 比較

單位 : 千원

		農業所得									農外所得	農家所得
		畓	田	비닐하우스	韓牛	乳牛	果樹	느타리	기타	小計		
耕種農業	前	1,772	1,042	148	482	—	240	—	117	3,801	921	4,722
	後	2,552	1,515	148	482	—	240	—	117	5,054	921	5,975
施設園藝	前	2,409	927	—	301	—	264	—	50	3,951	1,328	5,279
	後	2,409	634	2,028	301	—	264	—	50	5,686	1,328	7,014
畜産	前	1,981	793	—	146	1,083	725	—	400	5,128	1,265	6,393
	後	1,998	507	—	146	4,104	725	—	400	7,880	1,265	9,145
果樹	前	2,580	682	—	467	—	902	—	—	4,631	1,695	6,326
	後	2,580	682	—	467	—	2,728* (7,029)	—	—	6,457 (10,758)	1,695	8,152
特作	前	1,774	906	—	584	—	—	—	—	3,264	1,590	4,854
	後	1,774	806	—	584	—	—	1,703	—	4,867	1,590	6,457
平均	前	1,992	924	67	385	245	398	—	151	4,162	1,184	5,346
	後	2,349	1,021	373	385	929	570	129	151	5,907	1,184	7,091

( ) 안은 단감의 年平均 所得임.
* 11年次까지의 年平均 所得임.

많은 所得增加를 보인 부문은 酪農인데 선발 전의 639만 3천 원에서 선발 후에는 914만 5천 원으로 무려 43%나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所得增加가 많은 부문은 果樹, 施設園藝 特作으로 160~1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耕種農業은 所得增加가 제일 적었다. 農業所得의 構成을 보면 사업별로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즉 모든 事業部門은 支援作目의 所得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農業所得은 耕種收入+支援作目收入+其他作目收入으로 크게 三元化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영이 복합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所得의 安定的 增大 또는 所得發生의 週年化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後繼者들의 선발 전후 農家所得 分布는 〈表 9〉에 나타나 있다. 後繼者들의 選拔前 所得은 300만 원 이하가 11명인데 반하여 700만 원 이상도 13명이나 있어 개개인에 따라 所得分布가 상당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특히 自立農家의 所得水準이라 할 수 있는 年 600만 원 이상의 農家도 調査者의 1/3이나 되는데 이는 選拔

表 9 農民後繼者의 選拔前後 農家所得分布

單位 : 人

	3백만원이하	3—4	4—5	5—6	6—7	7백만원이상	계
선발전	11	12	8	4	5	13	53
선발후	1	4	11	6	7	24	53

過程에서 償還能力을 강조한 나머지 營農基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後繼者로 선발한 결과이다. 한편 선발 후에는 後繼者들의 所得分布가 전반적으로 上向移動하여 300만 원 이하가 1명으로 줄어든 대신 700만 원 이상의 所得을 올리는 後繼者가 2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自立農家의 比率도 선발 전의 34%에서 선발 후에는 58%로 24%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발 후에도 自立農家 수준에 미달하는 後繼者가 42%나 된다는 것은 自立定着基盤 確立이란 관점에서 볼 때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몇 가지 있다. 첫째, 所得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後繼者 選拔對象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다. 선발 후에도 自立農家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後繼者育成事業 목적에 위배

될 뿐 아니라 社會福祉配分의 衡平原則에도 벗어난다. 둘째는 育成資金을 上向調整하여 自立定着에 충분한 資金을 지원하여 주는 방안이다. 특히 耕種農業은 정부가 작성한 標準設計에 비해 支援金額이 적으며 收益性도 낮다. 支援資金을 增額하여 土地購入과 함께 畜産, 施設園藝, 特作 등과의 複合經營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번째는 事業別 一定金額 支援制를 지양하고 개인별로 差等支援하는 방안이다. 즉 後繼者는 行政 또는 指導機關의 指導下에 自立目標를 설정, 事業計劃을 수립하며 政府는 그 所要額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後繼者의 所得을 일정 수준까지 향상시켜 완전 自立農家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미국 및 일본에서도 이 制度를 채택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所要資金이 많고 行政管理가 복잡하므로 우리 나라의 현실정에서는 그 導入에 앞서 세밀한 硏究와 檢討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V. 償還能力 檢討

支援資金에 대한 償還能力檢討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後繼者家口의 全體所得에서 家計費를 제외한 殘額으로 償還能力을 검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後繼者 支援資金에 의해 증가된 소득만으로 償還能力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本硏究는 後繼者 선발 전의 財産보다는 支援資金 그 자체의 成果에 관심이 있으므로 後者의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後繼者 支援資金은 7年 償還이므로 7年間의 總所得 增加額과 總償還金額을 비교함으로써 상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耕種農業이나 畜産部門처럼 支援資金외에 별도로 自己資金을 投入하였거나 果樹部門처럼 장차 經營費로서 追加 投入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一般營農資金을 融資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年 10%의 利子率을 적용, 總償還金額에 가산하였다. 事業別 償還能力은 〈表 10〉과 같이 분석되었다. 耕種農業은 9年次에야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果樹部門은 11年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施設園藝, 畜産, 特作部門은 5년이면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早期償還이 가능한 세 가지 事業部門을 제외한 7년내 償還이 불가능한 耕種農業과 果樹部門의 償還期間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耕種農業은 年間 增加所得이 125만 3천 원에 불과하므로 据置期間의 조정보다는 償還期間의 연장이 요망된다. 그러나 果樹部門은 所得發生時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일단 收穫이 되기

表 10 償還能力檢討

單位 : 千원

	7年間增加所得	7年間總償還金額			A−B	償還可能期間
	總額 (A)	支援資金	自負擔金	計 (B)		
耕種農業	8,771	8,738	1,531	10,269	△1,498	9年
施設園藝	12,145	7,969	—	7,969	4,176	5年
畜産	19,264	7,858	4,532	12,390	6,874	5年
果樹	△2,453	8,697	2,422*	11,119	△13,572	11年
特作	11,221	7,554	—	7,554	3,667	5年

* 단감의 自負擔金은 2~4年次의 造園費임.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所得이 증가하기 때문에 償還期間의 조정보다는 据置期間의 연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 事業部門에 대해서는 償還期間을 앞당길 수 있도록 支援資金의 增額, 複合營農의 推進 등 보다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Ⅵ. 要約 및 結論

이상에서 農民後繼者의 資金使用, 經營實態 및 支援資金에 대한 償還能力을 검토하였다. 分析結果 밝혀진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後繼者에게 실제로 지급된 育成資金은 평균 652만 1천 원이며 사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支援時期는 3/4分期 이후가 대부분이며 1/4分期에는 融資實績이 없다. 또한 後繼者들의 希望融資時期와 실제 支給時期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育成事業効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後繼者들이 원하는 시기에 資金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支援資金도 1/4分期부터 방출함이 바람직하다.

(2) 後繼者들은 支援資金을 單一作目에 集中投入하고 있다. 그러나 事業에 따라서는 다른 作目과의 複合投資가 유리할 때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後繼者育成事業 目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複合投資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함이 요망된다.

(3) 後繼者들의 土地利用率은 畓 126%, 田 122%, 平均 125%로서 全國平均보다 조금 높았다. 畓에는 水稻 後作으로 麥類와 飼料作物이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田에서는 콩, 고추, 참깨 單作과 봄채소+가을채소의 作付體系가 많이 導入되고 있다.

(4) 選拔前의 後繼者 平均 農家所得은 534만 6천 원이었으나 選拔後에는 709만 1천 원으로 174만 5천 원(선발 전 所得의 32.6%)이 증가되었다. 선발 전에는 全事業部門에 걸쳐 耕種收入이 農業所得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선발 후에는 支援作目의 所得이 증가하여 主所得源이 되고 있다.

(5) 선발 전후의 農家所得을 비교하여 볼 때 自立農家 所得水準인 年 600만 원 이상의 農家는 선발 전 34%에서 선발 후에는 58%로 증가하였다. 선발 전의 財產狀態와 農家所得을 감안할 때 自立基盤이 이미 확보된 사람이 後繼者로 선발된 경우가 많았다. 選拔時 융자금 상환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適格者가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발 후에도 自立農家 수준에 미달하는 後繼者가 많아 自立定着基盤 확립이란 관점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

(6) 施設園藝, 畜產 및 特作部門은 5년 以內 償還이 가능하였으나 耕種農業과 果樹部門은 각각 9년, 11년으로 분석됨으로써 이들 부문에 대한 償還期間의 延長이 요청된다.

參 考 文 獻

農水產部,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實施要領」, 1981~83.

農協中央會, 「園藝指導便覽」, 1975.

農協中央會 調査部, 「經濟作物의 經營實態에 관한 硏究」, 1982.

朴振煥, "營農後繼者育成資金의 用途에 관한 實態分析," 「農業經濟硏究」, 第24輯, 1983.

李瑣鉉, "營農後繼者 育成施策方向과 改善課題," 「農漁民後繼者育成 세미나 報告書」,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業開發硏究所, 1981.

崔敏浩外, 「農漁民 後繼者 育成基金事業의 診斷과 改善方向」, 韓國農業敎育學會, 1983.